

3040 벤처 CEO 열전 9 프레시지 정중교 대표

# 700억 선제투자로 밀키트 시장 선도 간편식 퍼블리셔로 제2도약 본격화



하루 10만개 밀키트 생산 공장 준공  
500종 달하는 간편식 제품 생산  
해외판로 확대... 10개국 수출 전망

밀키트 전문기업 프레시지 정중교 대표는 급성장 중인 밀키트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젊은 CEO다. 정중교 대표는 2016년 프레시지 설립 후 6년여 만에 밀키트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특히 최근 3년간 평균 141%씩의 매출성장을 이뤘으며 지난 해에는 전년 대비 약 80% 매출 증가한 1271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코로나19 이후 집밥 수요가 증가한 식품업계의 최대 화두는 밀키트다. 밀키트는 미리 손질된 재료로 집에서 간편하게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집밥 전성시대'의 주역으로 불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밀키트를 비롯한 간편식의 온라인 구매 경향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경제연구원 따르면 지난해 밀키트 시장은 2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2배로 성장했다. 올해 3000억원 규모로 커지고, 2024년엔 7000억원 규모 시장이 될 것이라 전망이다.

◆트렌드를 읽는 감각과 과감한 투자  
프레시지는 당사의 성장에 정중교 대표의 트렌드를 읽는 감각과 시장의 잠재력을 과감한 투자가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프레시지 신선 HMR 전문 공장

정 대표는 첫 직장이던 투자자문회사를 그만두고 프레시지를 설립했다. 투자자문사에서 국내산업 전반에 대해 스타터디를 하며 규모에 비해 가장 혁신이 더딘 산업군이 식품시장이라 생각해 왔다.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에 가장 잘 부합하는 혁신적인 아이템이 밀키트라고 판단해 지금의 프레시지를 창업했다. 이 선택은 이커머스, 새벽배송 시장의 성장과 함께 밀키트와 같은 신선 HMR 제품이 선도를 유지한 채 안전하고 빠르게 유통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며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는 급 성장하는 시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었다. 700억 원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 지난 해 4월에는 하루 최대 10만 개의



프레시지 밀키트 6종

밀키트 생산이 가능한 HMR 전문 생산 시설을 준공했다. 같은 해 코로나19로 인해 밀키트 시장이 성장해 가속화되며 시장 내 독보적인 생산 역량을 확보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현재 프레시지는 밀키트를 비롯해 샐러드, 육류, 레토르트 제품을 비롯해 7가지 식품 유형, 500여종에 달하는 간편식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및 이커머스 기업들 PB 상품을 OEMoODM 생산한다. 전체 밀키트 시장에서 63%에 달하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밀키트 기업을 넘어 간편식 시장의 퍼블리셔로 도약 노린다

밀키트 선도기업으로 자리잡은 프레시지 정중교 대표의 시선은 B2B 사업으로 향한다. 대표적으로 OEMoODM 생산을 넘어 간편식 퍼블리싱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간편식 퍼블리싱 사업

은 식품전문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모든 의뢰자들이 간편식 시장에 관한 지식과 자본 없이 레시피 하나만 가지고도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프레시지가 상품의 기획부터, 패키지 구성, 가격 정책까지 컨설팅하여 생산한 후, 제품 특징에 맞는 판매 전략을 수립하여 유통망을 함께 개척해 주는 사업으로 생산부터 시장 배급을 총괄 하는 퍼블리셔의 역할을 담당한다.

대표적인 사례인 '백년가게 밀키트'는 중기부로부터 스타트업 최초의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으로 선정된 프레시지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다. '백년가게' 매장의 이름을 걸고 대표 메뉴의 제품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프레시지가 부담하고, 판매 로열티를 백년가게 점주

들에게 지급하여 신규 수익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함께한 프리미엄 밀키트 '63 다이닝 키트', 부산의 고래사어묵과 함께 선보인 '고래사어묵 밀키트' 등 다양한 고객사와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간편식 제품을 시장에 퍼블리싱 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퍼블리싱 제품 236종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프레시지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정통한 식품 중심의 K푸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해외로도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 2월 오세아니아와 미주지역 한인마트를 시작으로 4월에는 간편식 선호도가 높은 홍콩의 최대 한인 식품기업 '한인홍'과 온라인 간편식 쇼핑몰 '어니언마켓'과의 공급 계약을 통해 밀키트 31종 수출을 진행했다. 프레시지는 연내 10개국 수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 대표는 "프레시지는 그간 다져온 제조와 유통 역량을 기반으로 간편식 퍼블리싱 사업에 주력하여 다양한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와, 신규 수익을 창출하기 원하는 파트너사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누구나 손쉽게 간편식을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최적의 제조 플랫폼과 유통 솔루션을 제공하는 간편식 시장의 퍼블리셔로서 자리잡을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 유은혜 "2학기부터 확진자 1000명 미만시 전면등교 가능"

(교육부 장관)

### 교육부 전면등교 이행방안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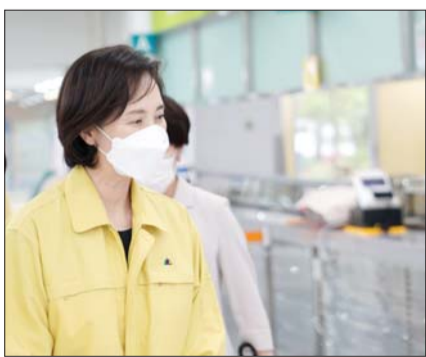
4단계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 적용 학교·교육청, 학사 운영 자율성 강화

오는 2학기부터 코로나19 전국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이면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이는 새로운 4단계 개편안의 1·2단계에 해당한다. 단, 전면 등교가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유치원 재원생과 초등 1·2학년은 거리두기 3단계까지 현재와 마찬가지로 밀집도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줄면서 발생한 학습·심리·정서 결손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교육부는 1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학교 밀집도 기준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려 등교 수업을 확대했다.

◆500명 미만 '전면등교'...1000명 미



지난 17일 오후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대학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만만 밀집도 조정 가능

2학기부터는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에 따라, 전국 확진자가 500명 미만인 1단계에서는 모든 학교·모든 학생이 등교수업을 실시한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확진자가 259명 미만일 때 해당한다.

전국 확진자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수도권 259명 이상)인 2단계에서는 가급적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2/3 수준의 밀집도 조정도 가능하다.

전국 확진자가 1000명 이상(수도권 519명 이상) 발생해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등교 인원이 전교생 3분의 2로 제한된다. 이때 ▲초등학교 3학년~6학년 3/4 이내 ▲중학교 1/3~2/3 ▲고등학교 2/3를 유지해야 한다. 단, 1학과 같이 전면 등교가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유치원 재원생과 초등 1·2학년은 3단계까지는 밀집도에서 제외된다.

◆학사 운영 자율성 제고... '재량적 운영 가능'

학사 운영에 있어서 학교와 교육청의 자율성은 강화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급, 과목·과목(교과) 여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 학교의 실제 운영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보급하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전문적인 상담(컨설팅)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계별 밀집도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거

리두기 2단계 시 학생 수 1000명 이상 또는 학급당 학생 수 평균 30명 이상 초등학교는 교사·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견수렴을 거쳐 4분의 3까지 등교하도록 할 수 있다.

전면 등교 시 방역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목·과목(교과)은 학교 특성에 따라 특별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하거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교사) 배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시간 조정 등 탄력적 학사운영도 가능하다. 학교 자율로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4일 등교+1일 원격수업' 등 수업시간을 탄력적 조정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가능해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면 등교는 대한민국 전체의 일상이 회복되는 전환점이자,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과 더 나은 학습을 돌려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교육계 전체를 비롯해 질병관리청 등 유관부처 모두가 합심해 2학기 전체 학생의 등교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hj@

### >> 1면 '청년·신혼부부...서 계속

청년맞춤형 특례보증 인하  
최저보증료 0.05→0.02%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1억원으로 확대되면서 대출한도가 작아 일반 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 약 5000명(약 4000억원)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금리 또한 일반전세대출보다 낮아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세대출·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한다.

청년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에 적용되는 최저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춘다. 전세대출의 보증료는 최대 0.12%에서 0.06%로, 전세 반환보증의 보증료도 0.07%에서 0.04%로 인하한다.

제도 개선사항은 오는 7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보증자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시중은행 창구·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적격대출은 시중금융기관·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청년 전월세 대출은 전국 14개 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